

## 朝鮮朝의 邑誌研究

— 現存邑誌를 中心으로 —

### A Study on the Eubji in the Yi Dynasty

金 田 培\*

朝鮮王朝의 邑誌는 地方 各邑의 地志인 同時에 地方史이며 當時 行政의 重要 根據資料로도 活用되었다. 特히 韓末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策資料로서의 比重이 컸던 行政事例集이기도 하였다.

從來의 國學研究란 中央政府 中心의 研究 爲主이었고 地方에 關한 研究는 資料의 不足으로 거의 度外視되었음을 勘案하면 地方志가 지니고 있는 史料의 價値는 더욱 至大하게 評價되는 것이다.

더우기 方志인 邑誌란 어떤 特定地域에 있어서의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에서 빚어진 歷史의이고 發生的인 諸般事項 即 沿革·戶口·產業·軍事·交通·通信·學校·人物·古蹟·風俗 및 諸般 行政·經濟·社會制度 등에 關한 事項이 昭詳히 收錄되어 있어, 이에 關한 研究에 邑誌가 지니는 資料의 價値는 매우 크다. 또 어느 歷史의인 時點에서 그 地方의 어떤 狀況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도 必要 不可缺한 資料로서의 性格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邑誌가 지금까지 많이 전하여지고 있음은 참으로 多幸한 일이나 이 重要한 邑誌의 歷史의 價値가 忘却된 채, 小數의 學者에 依해서만 部分的으로 利用되었을 뿐, 積極的으로 活用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 數量과 所在 조차도 完全히 把握되지 못하여 이의 綜合的인 調査가 時急하게 要請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우선 重要 官撰地志 編纂經緯를 그 性格과 體例에 따라 四段階(第一段階:「世宗實錄地理志」體例의 地志編纂事業, 第二段階:「輿地勝覽」體例의 地志編纂事業, 第三段階:「文獻備考」體例의 地志編纂事業, 第四段階:高宗朝 事例中心 體例의 邑誌編纂事業)로 區分 考察하였고, 그것이 邑誌編纂에 미친 影響을 究明함과 아울러, 比較的 該資料를 包括的으로 收藏하고 있는 藏書閣과 奎章閣의 現存邑誌를 中心으로 編纂經緯(七段階로 區分 考察) 및 內容을 살펴서, 諸般制度史의 研究를 爲한 活用方法(經濟·行政·教育·軍事·交通通信·語文學·歷史地理·文化財 및 書誌研究 등의 側面에서)을 講究하므로써 邑誌의 史料의 價値를 浮刻시켰다.

\* 文化財 管理局 藏書閣 所長